

01 목회권면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발맞추어 본 교회의 방침에 따라 성도들과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2주간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02 온라인예배

온라인예배 가이드를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제일명성교회 교인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리며, 각 가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온라인예배는 11시부터 드릴 수 있습니다.

03 코로나 정상화

코로나 19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제일명성교회는 2014년 1월25일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명성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 하나이지만, 이 교회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8월 23일
7권 3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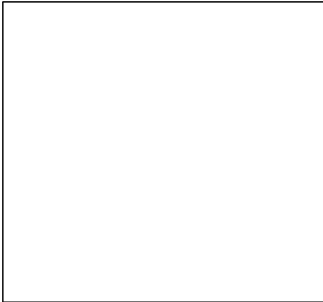
-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 2. 코로나19 종식과 의료진을 위하여
- 3. 제일명성교회와 광주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 4.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 5.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부목사	문성우, 박순영
전도사	김상태, 장종현
원로장로	최진호
은퇴장로	석용문, 윤동섭
시무장로	박인순
지휘자	강신모, 윤정민, 한경민
반주자	김범준, 김슬기, 박은영, 하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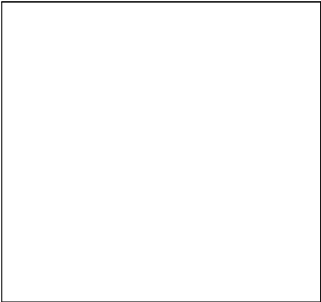
*여는찬양	주 기도문
*예배선포	인도자
*찬송	9장
*공동기도문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272장
기도	박순영 목사
교회소식 새가족환영	인도자
오늘의말씀	마 5:4
찬양	윤정민 집사
오늘의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윤호식 목사
봉헌	213장
*친교	다같이
*송영	진리와 생명되신 주(630장)
*축도	윤호식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오후2시



오후7시



8/24(월)
8/25(화)
8/26(수) 하루묵상말씀
카톡,문자로
8/27(목) 보내드립니다
8/28(금)
8/29(토)



■대표기도 1부 2부 3부



1. 월례회 및 각종 모임

각종 부서 월례회 및 모든 종류의 모임을 중단합니다. 특별한 자침이 있기 전까지 공모임 뿐 아니라 교회 내 친교 모임 또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 난 주 등 록



■ 2020년도 등록자

신주희	박선민	이미정	김지영	김일곤	장상민
최병주	윤미란	김완수	이향호	변춘식	조하나
심주원	진미숙	손미정	김성호	홍성인	
남기해	이원규	심은숙	이응창	정희숙	

제 목: “함께 가는 길, 동행”(창세기5:18-24)

오늘 본문은 아담의 계보, 족보입니다. 그중에 특이하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입니다. 동행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할라크입니다. 이 뜻은 ➊ 걷다 선택하다. ➋ 삶의 방식을 따른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고 삶의 방식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급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또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표현한 것입니까? ♣유다서 14~15"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계속하여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였기에 그의 삶은 평탄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시기를 알 수 없기에 그저 믿고 견뎌왔습니다. 결국, 므두셀라가 죽던 969세 때 노아의 홍수가 났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에녹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신약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믿음 장이라 일컬어지는 히11:5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또한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에녹에게 예언을 해주시고 심판하리라는 것을 말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피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도 평탄하지 않고 시험이 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니까 되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애통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응답하시고 인생이 그렇게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높게 보셨습니다. 자신은 좋은곳에 머무는데 반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없음을 안타까워 하는 다윗의 마음을 높이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므나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 받지 않고 신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한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징계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은 바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나의 관점이 바뀌어야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지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동행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행해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 십일조

강예식 김예연 김영섭 김은지 노옥순 문성우 박장금 석부길 손막동 엄영애 윤호식 이명호 이원규 이향실 정기숙 정순희 조영호 조옥순 차덕조 채석진 최보람 무 명

■ 감사헌금

강대희 강예식 강용중 강인환 권영숙 김교민 김미성 김영춘 김은지 남기해 노옥순 문다윗 문명숙 문성우 문지연 신동현 윤선례 이기세 이복순 이용창 장정순 정선영8 정후남 조용순 채석진 최정순 하니경 하상호 한옥희 황인순

■ 선교헌금

강예식 고동환 김미성 김은지 윤동성 정명희 조옥순 조미애

■ 주정헌금

김귀곤 김만수 박인순 변성진 손막동 엄만우 윤정민 이원규 이종부 장재욱 정영규 제인희 조근석 차금미 차덕조 최경란 최영식

■ 일천번제

김정혜

■ 장학헌금

변성진

온라인헌금안내

국민은행 638301-04-069570(광주제일명성교회) 예) 십일-홍길동, 감사-홍길동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선교사님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소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자녀에게 결혼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회사가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학기 준비 잘하고 논문도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아들이 안정된 직장으로 취업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여 불안할 때 주님의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사 좀 더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다시 말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은혜 찬양대 부용하게 하옵소서. 많은 물 피해에서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아들 지켜 주시고 마음에 문을 열어주세요. 엄마의 회복과 동생의 안전과 좋은 만남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남은 날을 주장하옵소서. 광주 제일 명성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될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남편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측구	탁구	바둑	족구	등산	볼링	실버합창
부장	장재욱	김교민	정성환	석용문	김학수	홍순자	채석진
총무	김병조	박인순	이종구	이승수	한상준	한경민	장복실